



[시장동향] 네덜란드, 인플레이션 1975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10.3% 상승...유제품 등 식료품 가격 급상승



지난 7월 네덜란드의 인플레이션이 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CB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0.3% 상승하며 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에너지 가격은 물론 임대료 및 식료품 가격이 급상승하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달 에너지 요금 부가세를 21%에서 9%로 일시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도 전년대비 12% 상승한 가운데 유제품, 아이스크림 및 곡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nltimes.nl, 8월 4일 >

[우유급식] 美, 교내 우유 디스펜서 운영 확대

- 포장폐기물 감소는 물론 우유 소비 촉진에 기여



미국 교내에 우유 디스펜서 운영이 확대되며 우유팩 폐기물 감소는 물론 학생들의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에서 제공되는 우유 중 30%가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버지니아주 교내에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사용하는 우유 디스펜서 운영이 확대되면서 우유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 디스펜서를 도입하면서 우유팩 보다 냉장보관이 용이하고 학생들이 직접 자유롭게 우유를 섭취할 수 있어 우유 소비 촉진은 물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디스펜서 도입으로 포장폐기물이 91% 감소하고 우유 소비가 52%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 morningagclips.com, 8월 4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